

온누리교회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생명까지도 던진故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심는 교회

The Onnuri Weekly

http://news.onnuri.or.kr

• 발행인: 이재훈 • 편집국장: 장선철 • 부장: 김남원 • 기자: 정지은, 오은지, 조유진, 조은실 / 140-240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271-106 / 신문사 3215-3199 / 570-7611 서빙고 793-9686 양재 573-9686

태풍 휩쓴 필리핀에 온누리교회 구호팀이 간다

26일 선발대, 내달 4일 의료·구호팀 출발
의료사역 및 \$100,000 상당 구호품 전달

온누리교회가 슈퍼 태풍 '하이옌'으로 큰 피해를 본 필리핀 중부지역에 의료팀과 구호품을 파견하기로 했다.

필리핀 태풍피해지역 긴급구호는 온누리교회 소속 NGO 더 멋진 세상을 중심으로 의료선교팀(CMN)과 대학청년부가 선봉을 맡는다.

더 멋진 세상 소속 직원과 피해지역에서 선교를 했던 선교사가 오는 26일 선발대로 출발해 구호팀이 사역할 필리핀 중부 일로일로(Iloilo)지역을 둘러보고 본격적인 구호활동을 위한 준비를 한다.

12월 4일에는 의료선교팀(CMN)소속 의료인 10인과 대학청년부 소속 청년 6인이 태풍 피해지역으로 떠난다. 현재 의료선교팀에서는 의료인을 모집하고 있다. 대학청년부에서 파견하는 구호팀 6인은 이미 모집을 마친 상태다.

온누리교회는 필리핀 태풍 피해지역에서 의료사역과 더불어 추수감사주일이었던 지난 주일(17일) 성도들이 봉헌한 헌금과 NGO 더



교회는 지진피해에 이어 슈퍼 태풍 하이옌이 휩쓸고 간 필리핀 중부 지역에 의료팀과 구호품을 파견해 지구촌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줄 예정이다.

멋진 세상의 후원금을 모아 \$100,000 상당의 구호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필리핀 중부지역은 지난 10월15일 발생한 리히터 규모 7.2의 지진으로 215명이 사망하고

가옥 3,450여 채가 파손 되는 등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인데 설상가상으로 11월 9일 슈퍼 태풍 하이옌까지 상륙해 피해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온누리교회는 지진피해지역 긴

급구호에 이어 태풍 피해지역까지 구호활동을 확대해서 진행하고 있다.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신혼부부 위한 맞춤형도집회 '커플LOOK'

내일, 서빙고 본당 저녁 7시30분

결혼 1년차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도집회가 드디어 내일로 다가왔다. 맞춤형도집회 '커플LOOK'은 부부라는 이름으로 새 길을 맞이한 신혼부부에게 함께 바라봐야 할 방향을 제시하자

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내일(월) 저녁 7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이번 집회에는 주영훈 부부, 탤런트 윤유선, 가수 아이비, 한스밴드 김한샘, 성우 서혜정,

재즈트리오 박윤찬 등이 게스트로 출연하며 이재훈 담임목사가 메시지를 선포한다. 현재 초청된 전도대상자는 340여 명이며(19일 기준), 신청인원이 너무 많아 60여명 정도가 대기자로 기다리고 있다.

/ 조유진 기자 ujin@onnuri.or

한식당 가격 인상 12월 2일부터 3천원

온누리교회 한식당 단체급식 판매 가격이 12월 2일(월)부터 3천원으로 인상된다.

선교재단측은 식재료비 상승 등 운영 환경 변화로 부득이하게 가격을 인상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성도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12월 2일부터는 기존 식권과 차액(600원)을 함께 투입하거나 변경된 식권으로 교환 후 식당을 이용해야 한다.

2013년 임직식 446명 대상

11월 30일 19시30분 서빙고 본당

오는 11월 30일 저녁 7시30분 서빙고 본당에서 2013년 임직식이 열린다.

올해 임직식에서는 446명(명예권사 41명, 권사 192명, 안수집사 남 88명, 여 125명)이 직분을 받는다.

임직대상자들은 검정색 또는 짙은 색 바지정장을 입고 참석해야 한다. 리허설은 오후 5시 본당에서 진행된다.

올해 임직감사헌금은 봉헌하지 않고 식사비용 등으로 사용되는 회비 2만원을 내야 한다. 참석자들에게는 국수가 제공된다.

계좌번호: 573-910003-90805

하나은행

예금주: 온누리교회 임직자스쿨

수원 담당목사 이·취임예배

오늘 오후 5시 본당

수원 캠퍼스 담당목사 이·취임예배가 오늘(24일) 오후 5시 수원 본당에서 열린다. 이날 김평래 목사의 이임사와 신기섭 목사의 취임사가 있을 예정이며, 주함께찬양팀의 특순이 준비됐다.

이·취임예배로 인해 오후 4시에 시작되는 대청예배는 오후 2시에 비전홀에서 진행되며, 오후 7시 열린 예배는 없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온누리워십, 찬송가앨범 발매

온누리교회 예배사역팀 온누리워십에서 찬송가앨범을 발매했다.

누구나 공감하고 함께 따라 부를 수 있는 찬송가들로 구성된 것이 특징인 이번 앨범은 예배사역본부장 김영진 목사가 프로듀싱을 맡았고 온누리교

회 예배인도자들과 찬양팀, 밴드가 참여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을 포함해 총 11곡이 수록되어 있다.

오늘(24일) 서빙고와 양재 로비에서 구입할 수 있다. 문의: 3215-3238

공동체 종강예배 일정 표 4면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아홉 명은 어디 있느냐?

감사는 치유입니다. 풍성하게 감사하면 본성을 이깁니다.
감사할 때 온전케 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누가 17:11~19

인생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미경의 관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망원경의 관점입니다. 현미경과 망원경은 둘 다 물체를 확대해서 보는 도구인데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현미경은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미세한 것을 실제보다 크게 확대해서 보는 기계이고, 망원경은 거리가 멀어 실제보다 작게 보이는 것을 실제 크기처럼 확대해서 보여주는 기계입니다.

여러분, 불평은 현미경과 같습니다. 실제로는 아주 작은 일인데 그 일을 크게 만들어서 삶을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감사는 망원경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죄에 가려져 제대로 보지 못할 때 감사의 망원경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 '죄'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다 탐욕을 더 사랑하는 등 여러 증상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런 증상들은 모두 죄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죄로 여기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도 말세의 증상 목록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하지 않는 것은 말세의 증상이요, 심각한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롬 1:21).

감사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수준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대표적인 모습이 감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감사가 가득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

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에 생각이 어두워지고, 허망해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지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자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적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치유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열 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 명은 어디에 있느냐?'"(눅 17:17).

열 명의 나병환자들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고 나머지 아홉 명은 감사하지 않았습니

다. 죽음과도 같은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아놓고도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정죄하고 비판받기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홉 명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택함을 받은 은혜, 구원을 받은 은혜, 돌보심을 받은 은혜, 인도함을 받은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영혼이 얼마나 될까요.

감사하지 않았던 아홉 명의 사람들이 믿음에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와 치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세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된 나병환자들

믿음의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문제와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와 기도하는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길로 지나가셨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가신 길은 보통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싫어했습니다. 그 지역으로 걸어가지만 해도 부정한 자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을 우회해서 가

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사마리아로 들어가셨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길로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에는 버려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와 갈릴리로부터 버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병환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나병환자들은 육체적 고통도 고통이었지만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전염성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나병환자들을 격리했습니다.

그들은 가족, 친구, 사회로부터 격리되었습니다. 버림받은 것입니다. 치료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지역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나병환자들이 나왔고, 갈릴리 지역에서도 나병환자들이 나왔습니다. 나병환자들이 모였을 때에는 그 사람이 이방인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병을 통해서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서로를 차별하고 구별하고 소외시키지만 병든 사람들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사마리아인이든지, 갈릴리인이든지 상관없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홉 명이 유대인이고, 한 명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은 그들에게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지역에서 나병환자들을 치료하셨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지역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나병환자들이 일반인들이 사는 지역에 가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그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직접 그곳으로 찾아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버림받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 스스로 헤어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열 명의 나병환자들이 멀찍이 서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왜 멀찍이 서

서 부르짖었을까요. 예수님 가까이 가면 사람들이 돌을 던져 오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습니

다. 믿음이 없었다면 부르짖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쳐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높이신 분, 권위가 있는 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재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자신은 아무런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만이 살길이라고 여길 때 가능합니다.

때때로 기도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빠서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관찮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

예수님은 나병환자들의 간구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나병환자들이 있는 것을 아셨고 그들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

다. 여기서 두 번째 믿음의 단계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고쳐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의 의미입니까.

당시 나병환자들은 몸이 고침을 받거나 회복되면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의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레위기

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확실하게 나았는지 판별하는 관별법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할 때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제사장에게 가는 사람들은 나병이 나은 사람들입니다.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회복 된 사람들이 제사

장에게 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전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병이 이미 나았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의아했을 것입니다. 나아진 증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에게 가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의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단 순히 불쌍히 여겨 달라고 아뢰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적용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으로 이끄십니다.

엘리사에게 찾아온 나아만 장군에게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라고 할 때도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 바다를 향하여 가라고 했을 때에도 바다가 갈라지지 이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는 모든 것을 이루고 난 이후가 아닙니다.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기적은 그때 일어납니다. 우리는 증거를 보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증거를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동의입니다. 확인일 뿐입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히 11:1).

증거가 보이지 않을 때 믿음을 적용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자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14 절).

나병환자들도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몸이 낫지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가라고 한 것이 의아했지만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한 사건입니다.

문제와 필요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와 부르짖는 믿음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단계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열 명의 나병환자들이 깨끗해졌지만 그 중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와 영광 돌렸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문제와 필요를 가지고 나아와 간절히 구하는 것

도 믿음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분명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절정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완성이요 믿음의 절정입니다. 참된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우선순위 ‘감사’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는 많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도 많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모두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열 명의 나병환자들이 모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아홉 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

습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축복과 기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아홉 명의 사람들도 틀림없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병을 고쳐준 것을 알았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하는 것과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진짜선물은 예수님과 만남

감사의 표현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표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행동과 표현이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감사해야 할 대상이 있

만이 포장지를 벗겨서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를 확인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진짜 선물은 그들이 나병을 고침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 선물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영혼의 치유

한 명의 나병환자는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행동은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은 신중하고 서두르지 않으며 살아야지만 단 한 가지 서둘러서 나쁠 것이 없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후회할 것이 없고,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성급하게 했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19 절).

구원이라는 단어에 포함된 의미가 매우 많습니다. 진정한 구원, 진정한 치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치료받는 것입니다.

아홉 명이 육신은 고침을 받았지만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고침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영혼의 고침 받았습니다. 온전한 구원과 치유가 한 사람에게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많은 것을 받았지만 감사는 받은 것에 비해 훨씬 적게 합니다.

여러분, 풍성하게 감사하면 본성을 이깁니다. 우리가 치료받는 것입니다. 감사는 치유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가 온전케 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합니다.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감사는 믿음의 완성입니다.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는 체험은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기적 또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일러스트 yje



었습니다.

예수님이 아홉 명은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홉 명의 영적인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은 가장 먼저 제사장에게 갔을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증명서를 받아야 사회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나병이 나았다는 확인서를 받고 무척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발걸음을 정죄한 것이 아닙니다. 기쁨을 누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족과 함께 기쁨을 나누라고 했

다면 직접 찾아가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해야 합니다.

오늘 고침을 받은 아홉 명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로 할 때는 영적으로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좋아지면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나병환자 열 명 중 아홉 명은 기적에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한 명은 기적도 좋지만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기적만을 좋아하면 기적이 끝나면 감사가 끝나지만 한 명의 인생은 감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 생애 마지막 달〉이라는 책을 쓴 우드워드 펠로쉽교회의 케리 숙이 목사는 ‘열사람 모두가 선물을 받았지만 그 선물의 오직 한 사람

풍성한 수확처럼 감사한 마음도 풍성

추수감사주일이었전 지난 주일(17일) 국내 10개 캠퍼스에서는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받은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캠퍼스마다 공동체별로 쌀과 과일 등의 감사헌물을 이웃들과 나눴고, 추수감사헌금은 필리핀 긴급구호를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평택 차세대 예꿈영역에서는 감사카드를 만들어 교회 데코에 이용했고, 꿈땅은 ‘푸드 페스티벌’을 열었다. 평택 대청은 일 년 동안 감사했던 일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상영했고, 평택역 주변 노방전도를 행했다.

양지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마라



지난주일 국내 10개 캠퍼스에서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쌀과 과일 등의 헌물을 모아 이웃들과 나눴다.

나타성가대가 한복을 입고 찬양을 했고, 꿈땅은 특식을 섬겼다.

/ 정지은, 오은지, 조유진, 조은실 기자

교회와 나라 열방 위한 기도의 용사들

양재 무릎선교기도학교 아웃리치

교회와 나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양재 무릎선교기도학교가 올해 마지막 일일 아웃리치를 떠났다.

지난 21일(목) 오전, 110여 명의 기도

용사들이 온누리M센터와 Acts29 비전 빌리지 두 곳으로 팀을 나누어 출발했다. 온누리M센터 팀은 다문화특구지역인 안산 주변지역의 돌아보며 땅밋기

를 했고, 김영철 목사(온누리M센터)를 통해 온누리M센터의 소개와 비전 등을 들으며 이주민 선교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가졌다.

비전빌리지 팀은 김영희 선교사가 인도하는 비전빌리지 시온홀 예배에 참석해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하며 함께 비전을 나눴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온누리 선교사 필수과정, OMO

선교사 준비 과정 및 선교 방향 제시

‘온누리 선교사’가 되려면 필수적으로 참석해야하는 온누리 선교사 1일 오리엔테이션(OMO:Onnuri Missioinary Orientation)이 지난 11월 16일(토) 두란노빌딩 202호에서 열렸다.

선교사 준비생 및 관심자 등 총 20명이 모인 가운데 도육환 목사(이전선교본부)의 환영인사, 영화 ‘버티컬 리미트’ 시청 및 나눔 그리고 선교사 준비 과정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선교에 헌신하여 선교사를 준비하는 준비생과 아직 구체적인 준비를 하진

않지만 선교사를 꿈꾸는 관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OMO는 온누리교회 및 두란노 해외선교회(TIM) 그리고 Acts29 비전빌리지 선교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역자, 선교사, 간사 등이 참여해 선교사 준비과정 및 선교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지침 등을 제시하는 과정으로 매년 5월, 11월 두 차례 진행된다.

문의: 오천병 간사(3215-3679)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형제간의 우애와 사랑, 나눴어요!”

공사랑, 4개 교회 연합 친선경기

같은 취미로 공감대를 형성하며 교제를 하고 있는 온누리남성 사역팀, 공사랑. 이들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축구를 통해 연합을 이루고 있다.

지난 11월 9일(토) 온누리교회, 지구촌교회, 사랑의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등 4개교회가 연합해 비전을 공유하는 친선 축구경기가 연남고등학교에서 열렸다. 총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친선경기는 고(敎) 하용조 목사(목회비전)를 공유했던 4개 교회의 스포츠 선교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스

포츠를 통해 열방에 복음을 전하자’는 취지로 첫 모임을 가졌다.

이날 공사랑 회원들은 “이번 모임을 통해 4개 교회가 연합해 형제간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교제와 나눔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렸다.

한편 오는 12월 21일(토)에는 한해 동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기념으로 ‘공사랑 송년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스포츠 선교팀 ‘공사랑’이 주최한 4개 교회 연합 친선 축구경기가 지난 11월 9일(토) 연남고등학교에서 진행되었다.

올 겨울, 햇불에서 배워요!

햇불트리니티 평생교육원

12월 햇불트리니티 평생교육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오는 30일(토)부터 리더십 코칭 프로그램인 ‘임파워링 코칭 워크숍’이 4주 동안 진행된다.

목사, 상담가, 교사, 리더, 부모를 위한 대화매뉴얼을 배울 수 있고, 비전과 변화, 성장을 위한 창의적 대화방법을 습득할 수 있다. 수강료는 35만원이다. 또

한 오는 12월 2일부터는 12주 간의 바디챌린지 ‘건강한 몸, 거룩한 성전’ 운동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전문 트레이너가 전신 운동과 스트레칭, 하체운동인 ABT운동과 댄스운동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가르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7시 15분부터 30분 동안 진행된다. 수강료는 12만원.

문의 02-572-1614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 2013년 하반기 공동체 종강예배 일정 ■			
날 짜	공동체	장 소	시 간
서 빙 고			
11월 23일(토)	고양은평	진관교회	오후 7시
12월 3일(화)	성동광진	두란노홀	오후 6시
12월 3일(화)	동작	한동홀	오후 6시
12월 3일(화)	마포	비전홀	오후 6시
12월 3일(화)	이수	시온홀	오후 6시
12월 4일(수)	북누리	북누리 비전센터	오후 7시
12월 5일(목)	이촌	두란노홀	오후 6시
12월 5일(목)	서빙고	한동홀	오후 6시
12월 5일(목)	동대문중앙	비전홀	오후 6시
12월 5일(목)	양천	EM전시관	오후 6시
12월 5일(목)	광명	신광교회	저녁 7시
12월 6일(금)	성북	한동홀	오후 6시
12월 6일(금)	천양사역	비전홀	오후 6시
12월 6일(금)	영등포구로	시온홀	오후 6시
12월 6일(금)	일산	일산 비전센터	오후 7시
12월 6일(금)	노원	노원 상현교회	오후 7시
12월 7일(토)	김포	김포 태광교회	오전 11시
12월 10일(화)	용산	두란노홀	오후 6시
12월 10일(화)	강촌	한동홀	오후 6시
12월 10일(화)	가정사역	비전홀	오후 6시
12월 12일(목)	한강	두란노홀	오후 6시
12월 12일(목)	중종로	한동홀	오후 6시
12월 12일(목)	관악금천	비전홀	오후 6시
12월 13일(금)	서대문	두란노홀	오후 6시
12월 13일(금)	여의도	한동홀	오후 6시
12월 13일(금)	OCC	시온홀	오후 6시
양 재			
11월 26일	특별한초대	온유홀	오후 6시
11월 28일	서초B	기쁨홀	오후 6시
11월 29일	강남B	화평홀	오후 6시
11월 29일	강남C	온유홀	오후 6시
12월 4일	강남A	화평홀	오후 6시
12월 4일	양재	드림홀	오후 6시
12월 5일	과천의왕	화평홀	오후 6시
12월 5일	분당B	온유홀	오후 6시
12월 5일	서초A	드림홀	오후 6시
12월 6일	분당A	화평홀	오후 6시
12월 6일	안양평촌	온유홀	오후 6시
12월 6일	서초C	드림홀	오후 6시
12월 11일	송파	화평홀	오후 6시
12월 20일	산본안산	화평홀	오후 6시



‘러브소나타 군마’ 끝나지 않은 이야기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감사예배

2천명이 넘는 참가자, 34명의 결신자, 300여 명이 넘는 재결신자 등의 풍성한 열매를 맺은 군마 러브소나타가 막이 내린 이후에도 그 감동이 이어져가고 있다.

지난 18일(월) 일본 교회 리더십들과 현지 온누리교회 스태프들이 마에바시 그리스도교회에 모여 감사예배를 드렸다. 말씀을 전한 실행위원장 아라카와 마사오목사는 “지난 1년 동안 함께 교류하면서 교단



만나게 된 것에 감사하다. 군마 러브소나타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니 함께 출발해가자”라며 군마 선교의 시작을 알렸다. 예배 후에는 각 위원 보고와 러브소나타에 대한 소감발표 등이 진행됐다.

앞으로 군마실행위원회는 러브소나타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후속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며, 매월 한 번씩 실행위원들끼리 모임을 가져 연합하여 함께 군마 선교의 발걸음을 걸어가기로 했다. 또한 실행위원과 협력교회 교역자 등을 대상으로 일대일 양육 세미나를 열 계획도 가지

고 있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메리 크리스마스!”

이천선교, 두란노해외선교(TIM)

온누리 이천선교본부 및 두란노해외선교(TIM)이 지난 11월 19일(화) 국립중앙박물관에 모여 박물관 관람 및 한 해를 기념하는 단체사진 촬영을 했다. 특히 선교사들은 남산타워가 보이는 중심부에서 고국에서의 추억을 남기는 마음으로 사진촬영에 임했다. 이번 모임은 이천선교와 두란노해외선교(TIM)가 한 자리에 모여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선교사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및 편지에 함께 축하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부흥의 불길 타오르는 ‘군마’

군마에서 보낸 60일

러브소나타 군마 집회 두 달 전, 현지에서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 군마현으로 향했다. 그런데 ... 설레고 기쁜 마음보다 걱정이 앞섰다. 거의 매일 언론에서 방사는 공포에 대한 보도가 흘러나왔고, 주변 사람들의 걱정과 만류에 떠나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분명 선하신 계획이 있을거야”

군마현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에서 했던 걱정들이 부끄러워졌다. 한국에서 온 나를 반갑게 맞아주는 현지 목사님, 러브소나타 군마를 기

도로 준비하고 있는 실행위원들의 모습이 그동안 무수히 했던 걱정들을 순식간에 잊아갔다. 군마현은 러브소나타 집회가 열리기 두 달 전인데도 부흥에감에 젖어있었다.

집회 날짜가 다가올수록 현지 실행위원들의 기도가 더욱 뜨거워졌다. 집회 참석자들을 모집하는 홍보전단을 나눠줄 때에는 ‘전도는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지 성도들의 열정이 돋보였다. 집회가 막 올랐다. 군마현에서 열린 기독교 행사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참석한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 한다. 복음을 듣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 예수님의 구주로

영접했으며 어린이처럼 기뻐 뛰는 사람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넘쳤다. 집회는 끝났다. 그러나 부흥열기는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일본 선교의 선봉을 군마현이 맡자!”

러브소나타를 마친 군마현에는 분명 변화가 시작되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이 분명했다. 군마현 현지로 파견 될 때의 발걸음과 한국으로 돌아갈 때의 발걸음이 다르다. 걱정으로 무거웠던 발걸음이 기쁨으로 가득한 가벼운 발걸음이 되었다.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상상 할 수 없을 정도로 선하시다.

/ 정현주 간사

(러브소나타 서울본부)



과천의왕, 통일염원 가을 여행

과천의왕공동체 70여 명의 지체들이 강화도로 가을여행을 떠났다. 이번 여행은 북한 땅을 향한 통일 염원과 가을 풍경의 아름다움을 즐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통일전망대를 방문해 북한 땅을 바라보며 공동체 지체들이 하나 되어 화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뜨겁게 기도했다. 박건용 총무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분단의 안타까움, 하나 된 공동체 등의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준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축하합니다

■ 서빙고

김준식 73086
왕호숙 73084
유원철 861027
윤옥경 770520
이도예 880713
이두희 710421
이미영 710320
이성비 880516
이영숙 480310
정현택 721123
조봉석 73088
최재혜 840217
한정옥 630818
하정수 580801
▷ 유아

김다나엘 120407
김대성 백진희
김유안 111210
김시형 김지연
박시영 130524
박계순 김효열
박시원 111122
박계순 김효열
신서진 120917
신재호 조영남
오민하 121017
오재영 임승연
유하은 130627
유준식 박세은
이동하 120418
이기호 김유섭
이수인 121117
이순재 구인규
채은서 130219
채성민 강지윤
최정훈 121226
최용일 김수미
하승현 121007
하정희 손진아
김나훈 130204
김반석 신승미
김도현 120919

김동호 박진선
김영은 120717
김형준 이은정
박병훈 120323
박혜영 최주미
성예지 130510
성락현 손지인
유민준 120308
유정훈 지은영
임나엘 120618
임경률 인수아
장은서 121104
장성우 이수정
전다울 130516
전준호 김현진
정하울 111125
정경금 이현숙
한누리 120410
한기원 김양미

특별한초대
장수연 890131
반재홍 720501
김시진 870312
문인배 700727
박금지 860320
▷ 유아
고유나 120412
이발립 111127
이화정 이영희
이시방 130917
이화정 이영희
반재홍 120201
반재홍 신지은
반서인 130514
반재홍 신지은
▷ 입교
박지혜 831105
나윤원 850914

■ 양재

김성숙 580715
박신자 530201

신성걸 601207
윤주연 631210
이수영 530621
이미영 700824
이주현 740120
이재희 700312
전병민 670110
한정훈 611007
▷ 유아
김 윤 111228
김현철 강연옥
김동주 120517
김용순 김혜나
김주원 120826
김승현 홍나현
박지은 111005
박명수 박소현
변우현 121129
변익준 지윤진
신승진 120224
신민호 정현정
유나현 111213
유성의 김향란
이예준 120902
이경일 이지연
이도윤 120813
이진철 이지혜
이은서 120917
이인식 이재연
이준우 130126
이승곤 권은경
이태민 120321
이은석 김미경
임동하 111122
임정규 김지영
전지후 111130
전영수 최해진
최은교 120128
최정현 우미경
정하승 111122
정영원 이소연
정영원 이소연

한 린 121009
한중희 김세영
홍승기 130612
홍성호 김해선
홍준기 120115
홍성호 김해선
장민아 871226
조종래 850223
▷ 유아
서보경 120930
서영호 주선영
〈갈릴〉
김대환 850831
신수희 810323
정하나 830223
〈허브〉
김영우 920521
신의향 941207
안현경 940514
이민재 891130
이선아 940107
〈J4U〉
김정수 770406
박성미 820208
▷ 입교
박해린 820729
〈GiL〉
이재은 880102
▷ 입교
노기봉 790228
이재민 870226
〈SNS〉
고정희 840125
김예원 830505
박광선 900803
반현숙 850128
〈Pole2〉
▷ 입교
김다혜 940423
박민재 940413
황은지 920405
〈여호수아〉
김명신 810217
김지선 830113
배재애 820104

11월 세례자

한 린 121009
한중희 김세영
홍승기 130612
홍성호 김해선
홍준기 120115
홍성호 김해선
장민아 871226
조종래 850223
▷ 유아
서보경 120930
서영호 주선영
〈갈릴〉
김대환 850831
신수희 810323
정하나 830223
〈허브〉
김영우 920521
신의향 941207
안현경 940514
이민재 891130
이선아 940107
〈J4U〉
김정수 770406
박성미 820208
▷ 입교
박해린 820729
〈GiL〉
이재은 880102
▷ 입교
노기봉 790228
이재민 870226
〈SNS〉
고정희 840125
김예원 830505
박광선 900803
반현숙 850128
〈Pole2〉
▷ 입교
김다혜 940423
박민재 940413
황은지 920405
〈여호수아〉
김명신 810217
김지선 830113
배재애 820104

장민아 871226
조종래 850223
▷ 유아
서보경 120930
서영호 주선영
〈갈릴〉
김대환 850831
신수희 810323
정하나 830223
〈허브〉
김영우 920521
신의향 941207
안현경 940514
이민재 891130
이선아 940107
〈J4U〉
김정수 770406
박성미 820208
▷ 입교
박해린 820729
〈GiL〉
이재은 880102
▷ 입교
노기봉 790228
이재민 870226
〈SNS〉
고정희 840125
김예원 830505
박광선 900803
반현숙 850128
〈Pole2〉
▷ 입교
김다혜 940423
박민재 940413
황은지 920405
〈여호수아〉
김명신 810217
김지선 830113
배재애 820104

류모세 선교사의 열린다 성경

니고데모와 유월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 3:3).

유월절이 가까워 오자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예수님이 남쪽 유대 지방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다.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환전상과 장사치들을 물리치고 성전의 부패를 척결하셨다. 북쪽 변방 갈릴리 출신으로 아직은 무명에 가까운 예수님이 종교적 기득권층과 혈전을 불사하심으로써 상당히 인상적으로 대비를 하신 것이다. 게다가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자칫 신성모독죄로 몰릴 수도 있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는 위협한 선포를 하셨다.

이 놀라운 선포는 예루살렘에 살던 1%의 상류층들에게 급속히 퍼져 나갔고, 산헤드린 공회원인 니고데모도 그 소식을 들었을 것이다. 이것이 아마도 니고데모의 발걸음을 예수님에게 향하도록 만든 가장 결정적인 계기였을 것이다. 당시 성전을 둘러싼 종교적 부패상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 었지만 정치적 실세인 헤롯 가문과 사두개파 제사장들 간의 암묵적 동의를 얻고 이루어진 탓에 어느 누구도 지적할 수 없는 금기였다. 이런 성전의 부패상을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담대하게 지적하신 무명의 젊은 랍비 예수에게 니고데모는 매료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 말씀 하셨을까? 우리는 니고데모가 먼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갖고 예수님께 찾아온 게 아님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이 ‘거듭남’을 주제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일방적으로 리드하고 계신 것이다. 이것은 바로 당시의 절기적 배경과 관련이 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때는 유월절이 지난 지 며칠 되지 않은 때였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역사에게 가장 중요했던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민족적, 그리고 국가적 정체성을 가지고 ‘새롭게 탄생한 거듭남’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사건이 아니던가? 고대 국가 이스라엘의 탄생(거듭남)을 기념하는 절기인 유월절에 예수님은 ‘거듭남’의 진리를 시의 적절하게 선포하심으로써 거듭남의 진리와 교훈을 더욱 극대화하신 것이다.

/ 류모세 선교사
(열린다 성경 아카데미 대표)



〈열린다성경 스터디 투어〉

이스라엘-터키-그리스 신구약성경 투어: 1월26일-2월8일
이집트-이스라엘 구약성경 투어: 2월10일-2월19일
문의: 김주희 간사(010-4902-1022)

여호수아

“내 영혼의 심장 뛰게 한 하나님의 프러포즈!”

여호수아 전도집회 ‘Bounce’ ... 220명 참석, 82명 결신

지난 11월 17일 오후 4시 양재 사랑홀에서 ‘영혼의 심장이 뛰다(Bounce)’를 주제로, 맞춤형 전도집회를 열었다.

특히 이번 전도집회에 특별 게스트로 초청된 가수 그룹 노을의 멤버 강균성 형제가 간절 한 마음을 담아 ‘청혼’을 부르며, 참석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 이어 아나운서 이지희 자매가 진행한 토크쇼에서 강균성 형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까지의 스토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이 180도 변화되었다”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장 큰 선물 되신 예수님이 내 영혼의 심장을 뛰게 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좋은 신 하나님’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렸다. 이날 ‘시간의 끝에서 영원 의 문으로(전 3:11)’를 주제로 말씀을 전한 이상준 목사(대청연합본부장)는 “‘바운스’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세상에 모든 것은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영원하거나 지속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에 심장이 다시 뛰는 자리를 찾아야 한다.

영혼이 영원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왔던 그 영원으로 ‘바운스’해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말씀 후에는 각각 주보 안에 있는 종이비행기에 소원 및 기도제목을 적은 후 날리며, 축복의 세리모니를 했다.

예배를 마치고, 양재 화평홀과 드림홀에서는 전도집회에 초청된 새가족과의 교제 시간



지난 주일(11월 17일) 여호수아 전도집회 ‘바운스(Bounce)’에 새가족 220명이 참석해 하나님으로부터 내 영혼의 심장을 뛰게 하는 프러포즈를 받았다.

이 이어졌다.

한편 이번 전도집회에는 새가족 220명이 참석했으며, 2부 순서(새가족 1주차)에는 146명,

82명이 결신(재결신 포함), 그 밖에도 71명이 교회에 관심을 보였다고 답했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Pole2공동체

“일요일이 좋다” 전도집회

28명 결신, ‘도심과 캠퍼스에서 복음 외칠 것’ 결단



지난 주일(11월 17일) 도심에서 복음을 외치는 Pole2공동체가 ‘일요일이 좋다’를 주제로 전도집회를 열었다.

지난 11월 17일(주일) 서울의 중심, 종로 서울시네마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대청 Pole2공동체가 ‘일요일이 좋다’를 주제로 전도집회를 열었다. 총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도집회는 가수 율라세션의 멤버 박광선 형제가 특순 및 간증을 선보이며 진한 감동을 선사했다. 특히 지체들이 준비한 스킷드라마와 위십, 찬양 등으로 참석자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안겼으며, 특별게스트 박광선 형제가 함께해 특순 및 토크쇼를 통해 간증을 나눴다.

이날 김영창 목사(Pole2공동체)는 느헤미야 8

장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일요일이 갖는 참된 의미를 전달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주일을 보낼 것”을 권면했다.

이번 전도집회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Pole2 형제, 자매들은 SNS를 통해 “전도집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소중한 친구에게 알리고 싶다”며 함께 중보 기도할 것을 부탁했다.

한편 전도집회에는 새신자 47명이 참석한 가운데 28명이 결신했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부천 여성사역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어머니가 되십시오!”

‘좋은어머니스쿨’ 종강, 85명 참석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부천 여성사역에서 주관한 ‘좋은어머니스쿨’이 6주간의 여정을 마치고, 지난 11월 22일(금) 종강했다. 성경적 여성상과 건강한 자아상 회복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세우도록 돕는 학교인 좋은 어머니스쿨은 85명의 어머니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월 18일부터 6주 동안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한 방법 등을 나누며 진행되었다.

이날 종강예배에서 김현옥 교수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자

기 자신을 수용해야 자녀, 남편과의 관계가 건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밖에도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예시를 들으며,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어머니의 역할, 남편과의 관계, 자녀교육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곳에 모인 어머니들은 한 목소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가 될 것”을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좋은어머니스쿨을 마친 수료자들에게 화관을 씌워주며 축복했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지난 11월 22일 좋은어머니스쿨 종강예배에서 85명의 어머니들이 수료했다.

알려드립니다!

CHRISTMAS FOR YOU ‘만남’

일시: 12월 11일(수) 오전 10시30분(수요오전여성예배)

장소: 본당

대상: 전도하기 원하는 주변의 가족, 친구

문의: 김혜경 전도사(032-322-9686)

평택

지난 주일(17일) 추수감사주일과 함께 평택 온누리교회에서는 세례식이 열렸다. 이날 장형석(성인) 성도와 신주완, 박전휘(유아) 성도가 세례를 받았는데 특히 박전휘 성도의 부모

박성우, 채유진 부부의 간증이 평택 성도들에게 따스한 감동을 선사해 호응을 받았다. 박성우, 채유진 부부의 간증문을 정리하여 실었다.

/ 정지은 기자 jjj@onnuri.org

“천휘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휘를 저희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벽찬 감사의 마음 올려 드립니다. 천휘를 올해 특별새벽기도회 때 처음 만나 평택 가족뿐만 아니라 평택을 방문해주신 이재훈 담임목사와 온누리신문에서도 축복해주신 것이 었고 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곧 100일을 앞두고 되었습니다.

천휘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주일에배뿐만 아니라 주중 화요여성큐티예배와 서빙고 헬로맘에 등록하여 말씀과 찬양을 가까이하게 하신도 돌이켜보면 그 무엇보다 훌륭한 태교가 아니었을까 다시금 감사하게 됩니다.

저 역시 얼마 전 출산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여 울부짖었지만 태초에 죄를 지은 이브에게 죄의 대가로 출산의 고통을 주신 이유에 대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통만큼이나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몸소 깨닫게 하신도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뉘아가는 아이 되길

천휘라는 이름의 뜻은 하늘 ‘천’, 빛날 ‘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이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천휘 아빠가 찬양 중에 영감을 얻어 지어주었습니다. 이 이름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로 성장해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영접하여 생활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아이가 되길 소망합니다.

천휘가 태어나서 하루하루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쁨과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알게 하신도 아이를 통한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와 남편에게 큰 축복을 허락해주셨는데 천휘는 그 중에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통해 천휘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태어난 지 100일이 채 되기 전에 받는 유아세례이지만 이번 세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이 아이에게 임하여 자라날 때 더욱더 하나님을 뉘아가

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천휘를 저희 가정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대와 선하신 계획에 늘 깨어있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휘의 탄생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축하해주신 평택 온누리교회 목사님들과 소망3순 식구들, 화요여성예배의 출산과 양육 선배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천국에 있는 범순에게도 미안함과 그리운 마음 전합니다.

/ 박성우, 채유진 부부

강동

프라미스 영성집회 “하나님께 매달려라”

알림

‘하나님의 대사’
김하중 장로 초청

“요즘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 매달립니다. 진정 하나님의 대사가 되고 싶다면 세상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인적 네트워크는 무시해야 합니다.”

공직생활 30여 년, 전 주중대사이자 외교부 출신 최장수 대사, 김하중 장로가 한 말이다. 종교서적 베스트셀러 <하나님의 대사>의 저자이자 세계를 품은 사랑의 중보기도자 김하중 장로가 강동 온누리교회를 방문했다. 지난 11월 17일(주일) 오후 2시 청년부 프라미스공동체 예배에 초청된 김하중 장로 ‘하나님의 대사’를 주제로 한 말씀이 전해졌다. 그는 주중대사 시절 쓴 기도일지와 5만여 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일화, 한 사람을 위해 19년째 기도하고 있는 믿음 소개해 청년들의 박수를 받았다. 특히 김



프라미스 영성집회 두 번째 시간에는 김하중 장로가 ‘하나님의 대사’를 주제로 강의했다.

장로는 청년들에게 자기 자신의 비전과 뜻을 구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것을 강조했다.

예배에 참석했던 이지영 자매는 “장로님이 하신 말씀 중 돈은 분명히 우상이라는 것이 기억에 남는다”면서 “돈과 사람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11월, 강동 청년부의 조직이 새롭게 개편돼 첫 주에는 신규 임원 교제식이 이뤄졌다. 이에 새롭게 마음을 다지는 의미에서 ‘프라미스 영성집회’를 계획했다.

/ 정지은 기자

■ 평택

전도사역팀 예배
일정: 11월 24일 본당
화요여성큐티예배 중강
일정: 11월 26일 오전 10시30분 본당

■ 강동

순장영성수련회
일정: 11월 23일 오전 10시~오후 5시
장소: Acts29 비전 빌리지
대상: 강동 성인공동체

프라미스 리더십 수련회
일정: 11월 30일~12월 1일
대상: 순장, 다락방장, MC 필참

강동 일대일 데이
일정: 12월 1일(주일)

차세대 유치부 전도집회
일정: 12월 14일

■ 수원

큐티 베이직 세미나
일정: 11월 17일~12월 15일(4주)
시간: 주일 오후 4~6시
장소: 4층 경찬홀
회비: 1만 원(교재 포함)

worship camp
일시: 11월 23일(토) 오전 10시~17시
장소: 비전홀
강사: 김종섭 목사(예수전도단 예배인도자)
이시은 선교사(예수전도단 선교사)
이근숙 성가사(온누리교회 성가사)
문의: 고영대 집사 (010-4117-3664)

당신은 정말 회개했습니까?

‘킹덤 빌더’ 스쿨, 12/12까지

강동 청년목요WHY집회가 4주 동안 특별집회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11월 21일(목) 손기철 장로의 ‘킹덤 빌더(Kingdom Builder)’ 스쿨 첫 강의가 시작됐다. 평소보다 4배 이상의 인원이 참석한 이날 집회의 주제는 ‘당신은 정말 회개했습니까?’. 이날 말씀을 선포한 손기철 장로는 성도들이 간파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로의 침노, 회개 등을 강하게 설교했다. 손 장로는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선포한 복음의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마 1:15)였음을 강조하며 “우리는 회개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 회개는 자신의 죄를 후회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옛 자아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중심의 사고체계로 되돌리는 것”임을 권면했다.

/ 정지은 기자



말씀 선포 후 손기철 장로의 안수기도가 이뤄졌다. 이날 스쿨에는 평소 예배 인원의 4배가 넘는 성도들이 참여했다.

온누리 5분전도 특집

전도가 내 삶이 되었습니다

온누리 5분 전도훈련 9기 수료식

지난 17일(주일) 서빙고 홍보관에서 온누리 5분전도 수료식이 열렸다. 이번 9기는 지난 9월 8일부터 10주간 진행되었으며 특별히 양재 캠퍼스 전도콜센터의 사역자를 육성하기 위해 예비 사역자들이 훈련조의 부조장을 섬기기도 했다. 또한 올해 새롭게 만든 온누리 5분전도 훈련 매뉴얼로 개인 맞춤 전도 훈련을 받으며 용산역, 서울역, 강남터미널, 금강병원과 보라매 공원 등 다양한 곳에서 전도실습을 병행했다.

수료식은 찬양으로 시작해 ▷기도 ▷시험 ▷전도 및 수료 간증(박인숙, 김홍자) ▷말씀 ▷시상식 ▷문제풀이 ▷조별모임 등의 순으로 이뤄졌으며 훈련생과 사역자를 포함해 총

58명이 수료했다. 이날 10주 동안 42명을 전도한 박화숙 집사가 전도왕으로 선정되었고 이외에 간증상, 성적우수상, 전도우수자 등의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김형철 목사는 요나서 말씀을 주제로 자신의 경험담을 전하며 “요나처럼 준비가 되었는 데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내 뜻대로가 아닌 주님이 사용해주시는 그것이 전부여야 한다. 이곳에서의 배움을 삶으로 나타내는 우리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조유진 기자 ujin@onnuri.org



인/터/뷰

“전도의 열정을 심어주셨습니다”

온누리 5분전도를 하게 된 동기는 짧은 시간에 만지 않는 자에게 복음의 핵심을 전할 수 있다는 것에 매력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전도분문을 버스나 지하철 등 이동하면서도 부지런히 암기했습니다.

제가 23년째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일하는 분야가 영업적인 측면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며 일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5분 전도를 훈련받는 동안 그분들

을 찾아가 전했습니다. 요새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집중해 듣는 귀를 닫아버리는 것이 전도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었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뿌린 씨앗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은 이번 과정을 통해 하루에 한명의 영혼이라도 꼭 구원하리라는 그 열정을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 마음 늘 새기며 전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 박화숙 집사(9기전도왕)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전도콜센터사역은 부름(콜)이 오면 전도하러 나가는 사역팀으로 200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전도폭발 1기를 시작으로 다리에화(브릿지) 그리고 지금은 ‘온누리 5분전도’ 훈련을 성도들에게 교육하고 훈련시킬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힘이 되어주시고 도와주신 이재훈 담임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죄인 한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눅 15:7). 즉 잃어버린 영혼 한명이 돌아오는 것을 매우 기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여 전도에 집중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듯이 온누리 모든 성도들이 전도 훈련을 받아 영적 전쟁에 필요한 말씀의 무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질문하는 반대질문에 대해 잘 대답해주고 이웃 친구 직장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긴 경우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도구(tool)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 장경문 장로



간 증

“예수님 잘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곳에 보내신 것 같아요”

지난 8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무척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양손에도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는 아주머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서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왜 이리 가세요 무거운데. 제가 좀 들어드리겠다고 말했고 그분은 괜찮아요 무거워요라고 하며 웃으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한손에 든짐을 받아들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팔이 아파 침을 맞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면서 내심 기뻐했습니다. 기회다 하면서도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꼭 전할 말을 전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했습니다. 도착하고 보니 반지리가 군데군데 있었고 세 사람이 앉는 자리가 텅 비어서 앉았습니다. 아주머니는 날씨가 왜이리 덥냐고 하시면서 땀을 닦으시고는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어디까지 가시는지 물어보았고 아주머니께서는 수서까지 간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곧 내려야했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 애였습니다. 아주머니의 손을 잡으면서 아주머니 예수님 소식 들어보셨어요라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고맙다고 하던 밝은 표정은 맹수와 같이 돌변해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뭐, 예수. 예수 믿는 사람이구면. 저리가 저리가 거짓말쟁이들, 저들끼리 속닥속닥하고 사람

차별하는 것들. 예수 믿어야 천국간다고 하겠지? 내가 오죽했으면 교회다니다가 천주교로 갔을라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아주머니께서는 온갖 욕설을 다 하셨습니다. 신발이 벗겨지면서까지 제발을 밟치고 밟고 손으로 밀쳐서 하는 수 없이 전 일어났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삶이 정말 진실하게 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또한번 통감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주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속사포와 같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유구무언이었습니다. 수치, 모욕, 당황을 느끼면서 그래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주머니의 손을 잡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

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어야 천국입니다 하고는 차에서 내려 꼼짝도 못하고 사라져가는 열차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이리 지혜가 없는지요, 능력이 없는지요, 저는 이것밖에 안됩니다 하면서 발걸음을 향하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말씀이 묵상되었습니다.

70대가 되도록 전도다운 전도 못한 것이 부끄러워 5분전도 훈련에 참가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잘 배워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조장님과 조원들의 친절하고 의지가 되어서 재미있게 주일을 기다렸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 김홍자



CGNTV 토크 콘서트 힐링유 MC

배우 정태우, 미스코리아 이성혜

“소통과 예배의 장(場)으로 초대합니다”

배우 정태우와 2011년 미스코리아 진 이성혜가 CGNTV 토크콘서트 ‘힐링유’의 새로운 진행자로 부름을 받았다. 시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선물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두 사람을 만나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힐링(Healing)에 대해 들어보았다.

출연자, 방청객, 진행자가 소통하는 힐링유

지난 2009년 결혼, 2010년 출산, 2011년 입대까지 배우 정태우에서 남편, 아빠, 군인으로 다양한 이름표를 덧달았다. 그동안 그는 군대에서 나이 어린 선임병들과 생활하는 것도, 전역 후 생활도 부담됐지만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주어진 상황들을 의미 있게 보내려고 애썼다. 그 모든 것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한다. 그는 모태신앙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줄곧 믿어 왔다. 하지만 그의 가족 중 어머니만 신앙이 있었던 시절에는 할머니 몰래 교회에 가아했다. 그의 할머니는 방 곳곳에 부적을 붙이고 생일에는 그 부적들을 태워 같이 먹이기도 했다. 그러던 중 가족이 분가하게 되면서 온 가족이 온 누리교회에서 신앙을 키웠다. 가족 모두가 성가대도 하고 공동체 생활도 성실히 했다. 지금은 할머니도 신앙을 가진 상태다. 그는 어느 때 힐링을 경험할까. 그는 소통에서 힐링을 느낀다. 결혼 후, 예전에 비해 누군가와 이야기를 주고받을 기회가 줄어들었는데, SNS를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다. SNS를 통해 가까운 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존경하는 목회자들이나 크리스천들의 메

시지를 보면서 에너지를 얻는다. ‘힐링유’ 출연자들의 메시지를 듣는 것도 또 하나의 힐링 타임이었다. 힐링유 진행자로서의 그의 각오를 들어봤다.

“출연자들이 자신의 이야기, 노래, 연주 등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음을 열고 출연자와 시청자, 방청객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힐링유’

2011년 미스코리아 진으로 선발된 이성혜는 주 최 측에서 종교적 발언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제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광을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 돌린다”는 소감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녀는 지난 5월 CGNTV ‘힐링유’에 출연했다. 그래서인지 이번엔 진행자로 섭외되었을 때 집에 돌아오는 것처럼 편하다고 했다. 사실 진행자 역할이 망설여지는 자리였지만, ‘힐링유’의 온기를 직접 느꼈던 터라 결심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녀의 집은 5대째 신앙이 이어져 내려왔다. 할아버지가 목사이고, 아버지는 의사지만 신학을 공부한 후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그녀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녀의 집은 신앙 색이 강했다. 가족들이 모이면 매일 가정예배를 드렸고, 그녀는 수시로 성경을 암송했다. 어린 그녀에게는 이런 것들은 다소 강압적으로 느껴졌다.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 캐나다로 유학을 떠나면서 모든 억압에서 풀려났다고 느꼈다. 아울러 신앙생활에 소홀해졌고, 곁에 있는 친구가 절대적인 대상이 됐다. 그러던 중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



배우 정태우와 미스코리아 이성혜가 CGNTV 토크 콘서트 ‘힐링유’의 새로운 진행자로 부름 받았다. 그들은 출연자와 시청자, 방청객과 소통하며 방송하는 매 순간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고 처음으로 왕따를 경험하면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그때 그녀가 떠올린 것이 어린 시절 외웠던 말씀들이었다. 그녀는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신의 비전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에게는 매순간이 힐링 타임이다. 미스코리아가 되고 사역의 자리에서면서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오픈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찾

는 순간이 힐링 타임이 되었다. 그녀가 진행자로서의 각오를 밝혔다.

“저의 기도제목은 무엇을 하든지 그 자체가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힐링유’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 방송은 매주 월요일 오전 9시40분

새가족사역팀 이야기 2

“용기내어 등록하세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정식으로 교회에서 등록을 하는 것에는 또 다른 용기가 필요하다. 교회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며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때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혼자서는 신앙생활에 한계가 분명 있기 때문이다. 함께 예배하며 양육받고, 서로의 삶을 나

누며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새가족사역팀의 이야기를 통해 아직 등록을 하지 못한 분들이 조금이나마 용기를 내어 그 첫걸음을 뚫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조유진 기자 uj@onnuri.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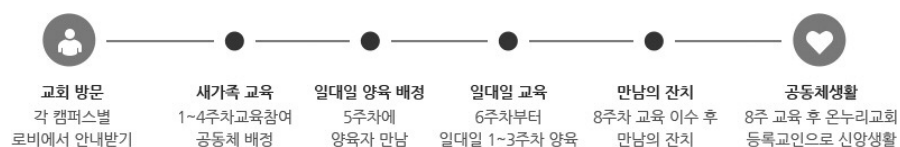
새가족이 되고싶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새가족이 교회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정한 양육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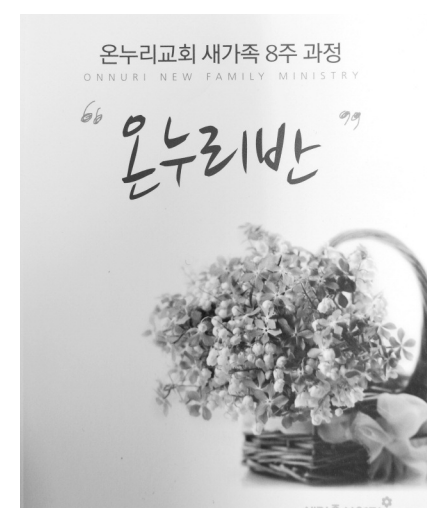
2013년 개정된 온누리교회 양육프로그램에 따라 새가족 교육은 총 8주 과정을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1주차 과정은 교회 소개와 더불어 개별 면담을 실시하여 교회가 어떻게 성도님을 도와드려야 할지를 파악하고 해당 지역의 공동체에 속해 순모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2주차부터 4주차까지는 신앙생활에 필

수적인 창조주 하나님, 매일 하나님과 친밀함의 만남을 위한 큐티와 양육체계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5주차부터 8주차까지는 일대일 양육자와 연결되어 일대일 성경공부가 진행되며 8주가 지나면 등록교인이 됩니다(일대일은 계속 진행). 온누리반 8주 과정을 이수하시는 중 목회적인 돌봄이 필요할 때에는 새가족 사역자에게 요청하면 공동체와 협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신앙생활, 더 큰 은혜 누리길”



온누리교회 새가족 양육시스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착하는데 있어 무엇을 붙잡고 출발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의 목회철학을 배운 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큐티로 접하면서 예배와 함께 매일의 삶을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하고, 신앙의 멘토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대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소그룹과 순으로 공동체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새가족사역을 하면서 매주 보람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고 이 분들이 여기에 오기까지 기도해준 사람들을 생각하며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게 생각됩니다. 영혼을 맞이하는 그 기쁨을 매주 경험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제가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새가족 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보자’ 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궁금증을 갖고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살면 몸이 살고 자신이 살게 됩니다. 그렇게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의 출발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홀로 외딴 섬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함께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도 말해주시지만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많이 말씀하시기에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실로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 강미향 목사
(서빙고 새가족사역 담당)



와이미션

선교적 삶을 꿈꾸며

양재 권사회, 와이미션 143명 수료

올해 하반기 양재 권사 스쿨은 와이미션으로 진행됐다. 온누리교회의 핵심가치인 선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와이미션을 통해 권사들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다시한 번 마음에 품었다. 총 143명의 양재 권사들이 수료한 가운데 와이미션이 끝이났지만 각자의 삶에서 선교적 삶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고백했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선교의 빛진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2013년 가을 권사회 ‘Why Mission?’ 강의를 통해 선교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로 떠났다가 십여 년 전에 돌아오신 순장님 부부와 사역팀에서 만난 믿음의 가정들 중 세 번째 가정을 선교사로 떠나보내며 ‘선교’란 단어가 점점 더 친숙히 다가오는 시점이었습니다.

늘 들었던 말씀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한 복음에 빛진 자가 바로 선교에 빛진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신약성경뿐 아니

라 구약성경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대해 말씀 하셨음에도 다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역사 강의 시간엔 27세의 나이에 처형당하는 순간에도 웃으며 성경책을 전했던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와 의료선교사로 사역하다 전염병에 감염되어 순교한 홀 선교사 가족이야기 등등 수많은 선교사들의 헌신과 사랑에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실제적 선교현장에서는 타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수적임을 재차 있게 풀어

주셨고, 복음의 내용을 변질시키지 않고, 복음을 선교지의 문화에 맞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주신 순장님 선교사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계 선교 현황과 선교 전략에 관해 명 강의를 해 주신 조명순 선교사님, 온누리 선교사역에 대해 명쾌한 설명과 선교비전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주신 황종연 목사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후반부쯤 방문한 안산M센터에서의 시간은 계속 우리나라에 유입되고 있는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귀중함을 재확인시켜주었습니다. 너무도 익숙해진 선교미션에 대해 정리와 이해와 도전을 준 ‘Why Mission?’이 무척 소

중하게 느껴집니다.

‘Why Mission?’을 마치며 최근에 선교지로 떠난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가까운 시일에 그 곳을 방문해 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들의 영이 날로 주님의 사랑으로 새로워지며, 그들의 필요한 것이 공급되며, 그 땅과 그 땅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이환인 권사
(강남B공동체)



성령수련회

성령수련회, 주님과 함께한 아름다운 시간!

올해 마지막 성령수련회가 지난 9일(토)~10일(주일) 양일간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다윗동산에서 열렸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과 봉사자들의 섬김, 편안한 교제, 이해영 목사의 은혜로운 메시지를 통해 참석자들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제 52회 성령수련회, 그 뜨거웠던 시간들을 두 성도의 간증을 통해 들어본다.

/ 조유진 기자 ujin@onnuri.org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느꼈어요”

너무나 따뜻했던 환영과 섬김, 조원들과의 새로운 만남과 교제, 아름다운 자연 안에서 누리는 쉽고 정성껏 준비해 주신 맛있는 음식은 성령수련회에서의 매 순간을 마치 천국에 있는 듯 더욱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었습니다. 바쁘신 이해영 목사님께서 제 뒷조사를 하셔서 리는 없었을 텐데 목사님의 모든 강의를 마치 저의 삶을 꿰뚫어 보시는 듯 제 마음과 영혼을 찔렀고, 동시에 말씀을 통해 아픈 부분들을 어루만져주시는 위로와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은혜를 받았던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오신 목적이 성령을 우리 속에 두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말씀을 행하게 하기 위해 서라는 것이었습니다. 곧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정작 주님처럼 사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보다는 ‘찌릿찌릿’한 순간적인 현상들에 치우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결코 가볍게 되지 않도록, 그분의 희생과 사랑을 더욱 닮은 삶의 모습을 고민하고 또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목사님께서

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사는 것”이 무엇인지, 곧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셨습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상황이 좋아서 기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힘들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삶,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안내하며 충성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저를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약할지라도 제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 불가능을 뛰어넘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이제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종일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으시는 사랑으로 인해 고난과 환난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닌 끌어안을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어진이
(영어예배 OEM)



“성령의 임재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어요”

11월 9일 오후 서빙고 본당에서 버스를 이용하여 ‘다윗동산’에 도착하였을 때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성령수련회 스태프들이 올리브 가지와 동산 입구까지 환영을 나와 주는 가운데 예배당으로 향하는 내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기에 충분할 만큼 진심어린 환대였습니다.

첫 강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시작되면서 ‘나는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동료들과 선포하라는 말씀이 신앙 안에서 당연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 날에는 유난히 내 마음을 두드렸으며 지금도 내 귓가에 또렷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간증하고 싶었던 특별한 증거는 네 번째 강의인 ‘영적전쟁’이 끝나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기도하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오지 못한 것에 대한 진심어린 후회가 생기면서 용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회개와 간절해서 성령님께 눈물의 기도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한참 후 나의 몸 속에서 막혔던 어떤 덩어리 같은 것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으며 몸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지면서 나의 교만과 부족한

것들이 깨달아지며, 내가 진정으로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크신 은혜를 받았다는 감격에 감사가 나오며 목사님과 조장님의 안수 기도가 있는 순간 나도 알지 못하는 중에 넘어져 있는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침 조별 나눔에서 조원 중 한 사람도 “자신은 위암으로 불면증과 변비로 인해 수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안수 기도 후 처음으로 편한 단잠을 잤을 뿐만 아니라 아침에 변도 보아서 매우 기뻐할 뿐만 아니라, 조식으로 제공하는 샌드위치와 우유는 이전 같으면 전혀 먹을 수 없었던 것들이었는데 잘 먹고 지금은 마음과 속이 너무 편하다”라며 성령수련회에 오게 된 것을 감사하다는 말에 우리 모두는 성령의 임재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강의를 겸한 주일예배를 마치고, 조장님이 화관을 머리에 씌워 주실 때 마음속에는 어느덧, 이제는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 가는 ‘새로운 시작’을 하겠노라고 굳게 다짐할 수 있었던 정말 특별한 성령수련회였습니다.

/ 김예선 (서초B공동체)





내게 너무 소중한 ‘일대일’

지난주일(17일), 일대일과정을 수료한 대상자들에 한 해 일대일 수료예배가 열렸다. 일대일 과정 속에 그들이 누린 은혜의 고백이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 살 것!

어렸을 때부터 학생회 임원부터 성가대, 주일 학교 교사, 서리 집사 등등을 먼저 섬긴 교회에서 거쳐 온 제가 새신자 과정에 접수할 수 있었던 데는 사실, 온누리교회를 출석한 이후 변화된 저의 생활습관 때문이었습니다. 대학생활에서부터 시작된 음주문화는 직장생활 내에서 일 잘하는 직원은 술도 잘 마셔야 하며, 교회 다니면서 직장에서 술 안 마시는 직원은 팀워크를 방해하는 직원으로 낙인찍는 사회적 분위기를 그대로 수용하고 말았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람을 만나고 온누리교회에 출석한 이후 저는 옷을 찢으며 화개하는 마음으로 직장 내에서 술 문화를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금주로 인한 공공연한 인사적인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주님께 속한다는 믿음 하나로 힘겹게 버티고 있고, 마음만은 가벼워지는 신앙으로 인한 생활의 변화를 온누리교회 출석 이후 경험한 지라 새신자 과정에 대한 저의 인간적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대일의 과정은 저의 신앙적인 교만도 내려놓고 성경이 저의 삶의 세세하고 체계적으로 개입하여 주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

날의 신앙에 대해 더 많은 반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순종하는 삶”을 나누는 주간에 뜻하지 않게 찾아온 극심한 가정불화로 인해 제대로 양육자님과 말씀을 나누지도 못하는, 주체할 수 없는 슬픔 중에 주님께서는 저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라는 말씀을 양육자님의 입을 통해 위로를 주셨고 “이혼하는 마음을 주는 모든 요인은 다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는 양육자님의 말씀을 통해 회복의 의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해야 하는 에베소서의 말씀은 몇 달 전 예배시간 목사님의 말씀이기도 했기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집사람의 관점에서 집사람의 스트레스를 역시 이해하며 극한 가정불화를 말씀으로 극복하게 하였습니다.

일대일을 하는 동안, 제 삶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승리하는 삶에 대한 열망을 심어준 소중한 양육과정인 끝나면, 혹여 말씀 묵상이 아는지나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 저는, 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에 대한 죽는 날까지 이어질 열망을 안겨주시는 주님을 믿으며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정연승(영동포구로공동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무도 나를 아는 체 하지 않는 것이 좋아서 온누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곤 했었습니다. 그렇게 8년 여의 시간이 흘렀고 그 기간 동안 겨우 손에 꼽힐 만큼 하나님을 찾곤 했습니다. 그러나 울해 들어 내 맘에서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나를 자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가깝게 지내는 지인 중 온누리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이 많았기 때문에 제 고민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곧바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잡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새신자로 등록하면 8주나 성경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번거롭게 느껴졌습니다. 모르는 분과 일대일 성경공부 한다는 것도 부담스러웠고 20여 년 동안 나쁜 설교를 들었는데 다시 성경공부를 한다는 것도 저를 머뭇거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양육해주실 집사님과의 첫 만남에서부터 저의 머뭇거림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일대일 성경공부의 시간이 계속되면서 저는 제 안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보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누구든지 물었을 때 당당하게 말해왔지만 그동안 내가 너무 기도도 안하고 말씀도 안 읽

고 예배도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서 나를 떠났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양육자님은 저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전해주고자 너무나 열정적으로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를 향한 양육자님의 안타까움을 온몸으로 온 맘으로 느낄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를 향해 변함없이 두 손을 펼치고 계신 하나님께 다가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저만 변화하면 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느끼게 하고자 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양육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껏 안타깝게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멘 어리석게 살지 않도록 저를 항상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에 중심에서 항상 거기 그렇게 계시면서 저를 감찰하여 주시고 간섭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 김해영(한강공동체)



비록 73세 늦은 나이지만...

양육자와의 나눔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시어 제 안에 있던 상처들이 치유되기 시작했고, 회복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여 내 입을 가만히 둘 수가 없어 만나는 사람마다 치유와 회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양육자까지는 부족한 것이 많아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양육자의 강력한 권유에 순종하여 양육자반을 마치고 새로운 동반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동반자와 삶을 나눌 때마다 동반자 때 받은 치유와 회복을 보게 하시고 더 큰 은혜와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일대일 나눔을 통해 복음이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는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체성이 확실해지고 분명해지면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대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사단의 역사와 방해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

씀과 능력을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일대일 나눔을 통해 자신의 교만이 보이고 영적 겸손함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말씀이 실체가 되는 삶을 배우게 되었다는 동반자의 고백을 들었을 때 참 기쁘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영혼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며 일대일로 각 교회의 지체들을 섬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을 때 대외사역의 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16주의 기간 동안 일대일 대외사역을 하면서 말씀으로 한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리더십으로 세우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비록 73세의 늦은 나이지만 주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언제라도 동반자의 손을 잡고 말씀 안에서 안내자로, 멘토로, 일대일 양육에 양육자로 헌신하겠습니다.

/ 이영진 권사
(분당B공동체)



흐르는 눈물 그분을 만났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형제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 교제가 시작되면서부터 형제는 저를 교회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형제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무작정 따라오게 되었지만 어느 순간 찬양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나와 찬양만 하면 가슴 어디선가 떨림이 시작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싶어도 흐르는 눈물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것이 바로 그분의 은혜라는 것과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대일 동반자과정을 받기 전 4주 동안의 새신자 교육은 저에게 어색하고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일대일 양육이 시작되었고 첫 과부터 말도 안 되는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양육자분께서 꼭 손으로 모든 구절을 찾고 써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꼬박 세 시간 동안 손글씨로 성경구절을 썼습니다. 쓰라고 하셔서 썼지만,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이렇게 열심히 세 시간씩이나 집중해서 공부해 본 적이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날벼락 맞은 것 같습니다. 손 글씨가 너무 힘들어 컴퓨터로 쳐도

되는지 꾀도 내 보았지만 양육자님은 "너무 힘들면 컴퓨터를 사용해도 돼요. 하지만 쓰면서 묵상도 되고, 하나하나 성경구절 뜻을 헤아리면서 이해도 될 테니 아마 본인이 더 그러고 싶어 할 거 같은데?"라고 제 속을 흰히 꿰뚫어 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11번째 만남이 될 때까지 손글씨로 성경을 찾아가며, 밑줄 짹, 색연필로 색칠하면서 기본 2-3시간을 성경 찾고 손으로 쓰는데 투자하면서 일대일 동반자 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불평으로 시작되었던 일대일이 지금의 제 모습을 바꾸어놓았습니다.

지금의 저는 주일마다 목사님이 말씀해주시는 모든 말씀을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고, 말씀의 중요함도 알게 되었습니다. 양육자님의 일종의 강한 양육이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게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기초가 되는 것임을 일대일 과정 속에서 깨달으며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 이주현 (분당B공동체)



군포시 청소년쉼터 하나로

행복으로 성장하는 즐거운 꿈터

“개원 11주년을 축하합니다!”

방향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 아래 2002년 11월 군포 시청년쉼터 하나로(이하 군포하나로)가 개원했다. 지난 21일(목) 군포하나로가 11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11주년 기념예배는 ▷찬양-하나로찬양팀 ▷기도-조항진 장로 ▷말씀-이정환 목사 ‘기회를 놓친 세 사람(히브리서 12:16-17)’ ▷영상 발자취 ▷사업보고-임재금 팀장 ▷내빈소개-김형근 소장 ▷축사-정호욱 목사 ▷표창-자원봉사자(노재옥), 직원(김희숙) ▷수기발표-호승환(졸업생), 전휘경(자원봉사자) 등의 순으로 이뤄졌다.

조항진 장로는 대표기도를 통해 “이 시설 청소년들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정직한 영을 가진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되길 바란다”면서 “이 쉼터가 희망의 등불 역할을 잘 감당하는 축복된 공간이 되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이 날 말씀을 전한 이정환牧사는 에서, 사울, 기럇 유다를 예로 들며 “하나님께서 주신

조건과 환경, 기회에 감사하지 않는 자는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없다”면서 “이곳 가운데 있음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깨닫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모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축사를 통해 정호욱 목사는 “11년 동안 기도와 자원봉사, 후원 등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한다. 더욱 큰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군포하나로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센터를 졸업하게 된 호승환 형제는 “이곳에 온지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정말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시고 방향할 때마다 붙잡아주신 선생님께 무엇보다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평생토록 잊지 못할 것”이라고 고백했다.

/ 조유진 기자 ujjin@onnuri.org



온누리요양센터

추수감사의 기쁨과 함께한 세례식



지난 11월 19일(화) 오전 10시 온누리요양센터에서는 추수감사의 기쁨을 나누는 가운데 은혜로운 세례식이 이뤄졌다. 예배에는 51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했으며 모세중창단의 아름다운 찬양 특수와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세례식은 김영배 목사(양지 캠퍼스)가 진행했으며 두 명의 어르신이 세례를 받았다. 고송자(70) 어르신은 세례를 받으며 연신너무 감사하다고 하며 감격의 인사를 건넸다. 세례를 받은 남궁연희(77) 어르신의 아들 유봉희 형제는 “현재 미국에 살고 있어 세례식에는 참여 못했지만 어머니가 세례를 받는다는 소식이 너무 기쁘고 행복해 하시는 사진을 보니 감사할 따름”이라며 멀리서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다.

시립동부노인전문 요양센터

우리는 동부의 진정한 스타!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에서는 2013 직원단합프로그램 ‘동부 락(樂)스타’를 진행했다. 행사를 통해 직원, 봉사자, 입소 어르신들이 하나 되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청파노인복지센터

청파노인복지센터는 척추관절 전문병원인 나누리병원과 11월 8일(금)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교류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검진은 나누리병원 임직원 30명이 참여했으며, 경제적 부담으로 제대로 된 검사와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고통 받는 어르신들 200여명을 대상으로 진료와 상담이 진행됐다. 또한 만성질환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물리치료 및 운동치료가 병행됐고, 더욱 정밀한 진료를 위해 X-ray 검진과 당뇨, 혈당, 골밀도 등 다양한 검사도 함께 이뤄졌다.

나누리병원 임재현 병원장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줄 수 있는 도움이 많은데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 이번 자리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와 건강증진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용산노인종합 복지관

어르신들의 뛰어난 외국어
실력에 놀랐어요!



용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제 4회 어르신 외국어말하기 대회를 진행했다. 복지관의 많은 어르신들이 이번 대회에 참석해 자신의 외국어 실력을 뽐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번동코이노니아 장애인보호작업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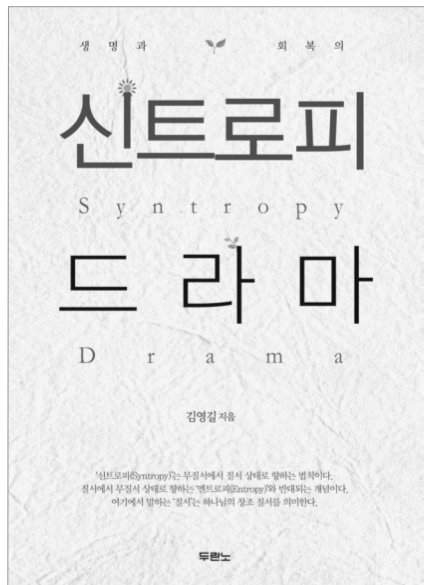
지난 20일 우리투자증권 청담지점에서 번동코이노니아장애인보호작업시설(이하 번동코이노니아)에 운동화를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장애인들이 안전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지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그래서 특별히 겨울철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운동화로 총 40켤레를 선물했다.

우리투자증권(청담지점)의 이화실 부장은 “이전부터 장애인에 대한 봉사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지난 2011년 성북공동체 터키아웃리치를 통해 번동코이노니아를 알

우리투자증권 청담지점,
운동화 기부



게 되어 인연을 맺고 이후 회사직원들과 같이 장보기,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함께 진행하면서 관계를 쌓아왔다”면서 이번 기부행사를 하게 된 이유와 소감을 전했다.



신트로피 드라마

김영길 지음 | 두란노 | 214쪽 | 11,000원

무신론 과학자에서 하나님의 대학, 한동대학교 총장으로 헌신하고 있는 김영길 박사가 생명과 회복의 '신트로피 드라마' (Syntropy Drama)를 이야기한다.

김영길 박사의 무신론 과학자로서의 삶이 '엔트로피 드라마'였다면 창조론 과학자로서의 삶은 그와 반대되는 '신트로피 드라마'이다. 신트로피(Syntropy)는 무질서에서 질서 상태로 향하는 법칙을 뜻한다. 즉 신트로피는 인간의 타락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영적·도덕적·윤리적으로 회복하는 것을 의미

한다.

총 2부로 구성된 이 책은 김영길 박사가 예수님을 믿기까지의 간증과 하나님의 창조 법칙, 이 땅에 왜 신트로피 드라마가 펼쳐져야 하는지를 인류 문명사의 변화로 설명하고 있다.

신트로피 드라마의 좋은 샘플이 되고 있는 한동대학교의 교육 철학과 신트로피 크리스천 리더십에 대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하게 순종한 저자의 모습이 담겨있다.

팔복

유재명 지음 | 두란노
| 243쪽 | 11,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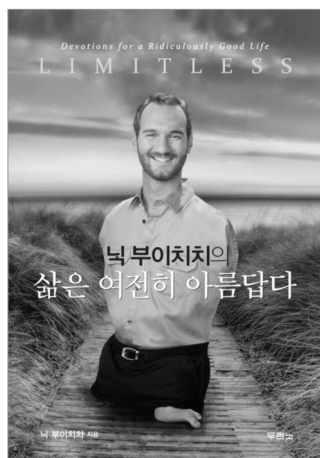


산상 설교의 핵심이 되는 팔복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삶에 적용하도록 돕는 책이다. 저자는 팔복을 소유하기 위해 심령을 가난하게 하도록 힘쓰고, 애통해 하도록 힘쓰며, 마음을 청결히 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윤리적 접근으로

다가가지 않는다. 오히려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 애통해 하고, 마음을 청결히 하라고 요구하시는 주님의 숨겨진 마음을 묵상하도록 인도한다. 팔복의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고, 일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영적 무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닉부이치치의 삶은 여전히 아름답다

닉 부이치치 지음 | 최종훈 옮김
| 두란노 | 228쪽 | 11,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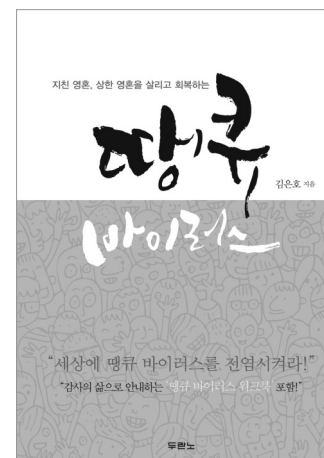


“삶을 아름답게 하는 최고의 비결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인생을 맡기는 것이다.” 닉 부이치치의 진정성 있는 긍정의 마음과 가슴으로부터 보내는 격려의 메시지가 담겨있다. 그의 삶이 묻어나는 50개의 묵상과 에피소드로 작은 일에 낙담

했던 우리 삶의 태도를 재점검해 볼 수 있다. 감동적인 역경 극복의 사연들과 실제적인 삶의 조언, 성경구절로 격려한다. 그리고 말한다. 삶의 가치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서 나오며, 그렇기 때문에 삶은 여전히 아름답다고

땡큐 바이러스

김은호 지음 | 두란노
| 236쪽 | 10,000원



“감사는 믿음, 소망, 사랑이 농축된 신앙의 진액입니다.” 저자 김은호 목사는 1989년 상가한 켄에서 요류교회를 개척해 이제는 장년 출석 1만 명을 넘어서는 대형교회가 되기까지 성도들에게 감사의 삶이 주는 풍요로움을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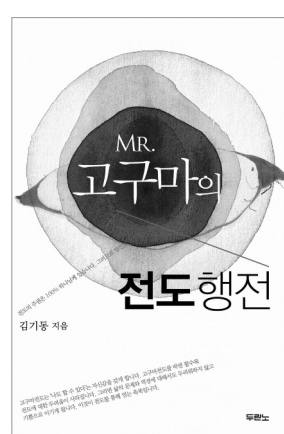
하며 몸소 그 삶을 실천해왔다. 물질은 풍요롭지만 감사가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지난 1년간 강단에서 끊임없이 감사에 관한 말씀을 선포했다. 힐링, 점핑, 블레스, 러닝 등 감사에 대한 네 가지 주제를 다루며 한국 교회 전체에 감사의 운동이 일어날 권면한다.

예수 중심의 교회

매트 찬들러 외 지음 | 정성묵 옮김
| 두란노 | 307쪽 | 14,000원



미국 복음주의 차세대 설교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빌리지교회 수석목사 매트 찬들러와 그의 동역자 조쉬 패티슨, 에릭 게이저 목사가 함께 쓴 <예수 중심의 교회>. 이 책은 철저하게 성경말씀을 토대로 해서 '예수 중심의 교회'로 거듭나는 구체적인 과정을 소개한다. 개인과 교회 공동체는 계속해서 복음으로 돌아가야만 숨을 쉴 수 있고, 살수 있다고 말한다. 복음이란 막연한 개념이 아닌 예수님 그분 자체이며 교회의 중심은 전적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이 완성하신 일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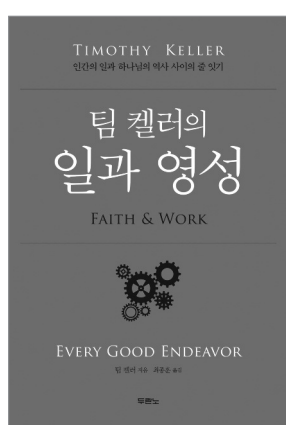
MR. 고구마의 전도행전

김기동 지음 | 두란노
| 248쪽 | 10,000원

고구마 전도란 자기네 교회로 이끄는 전도가 아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복음의 젓가락으로 고구마를 찢러 그 상태에 맞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한다. 전도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찢린 고구마를 익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 익은 고구마를 거두신다는 것이다. 이 책은 전도에 대한 참뜻을 알려주고, 그간 전도에 대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오해를 바로 잡아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고, 삶의 문제와 역경에 대해서도 담대히 대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팀 켈러의 일과 영성

팀 켈러 | 최종훈 옮김
| 두란노 | 344쪽 | 13,000원



“왜 일해야 하는가? 어째서 이토록 삶이 고달픈가?” <뉴욕타임스>가 꼽은 베스트셀러 작가 티머시 켈러는 어떻게 하나님이 한 사람 한사람을 부르셔서 일과 직장생활을 통해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드러내시는지 선명하게 보여준다. 저자는 성경의 지혜야말로 일터에서 일어나는 온갖 문제들에 엄청난 실마리가 된다고 말한다. 직장에서의 삶이 자신을 위한 차원을 넘어 다른 이들을 돕고,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지 자세히 설명한다.



재정과 영적 성숙

강준민 지음 | 두란노
| 160쪽 | 6,000원

강준민 목사의 영적 성숙 시리즈 여섯 번째 책이다. 재정문제를 성경적 관점으로 다뤄 물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안내한다. 책은 저축, 자유, 성품, 우선순위, 가치 등 5가지의 재정훈련이 나와 있다. 저자는 베푸는 것보다 적게 쓰고, 나눔을 위해 저축하며 하늘에 보화를 쌓기 위해 저축하라고 말한다. '돈' 문제에 휩싸인 가정, 교회가 가져야 할 돈에 대한 바른 지식과 습관이 무엇인지 성경적인 지혜를 배울 수 있다.

씀은 몇 달 전 예배시간 목사님의 말씀이기도 했기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집사람의 관점에서 집사람의 스트레스를 역시 이해하며 극한 가정불화를 말씀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 드립니다.

일대일을 하는 동안, 제 삶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승리하는 삶에 대한 열망을 심어준 소중한 양육과정이 끝나면, 혹여 말씀 묵상이 알아지지나 않을까, 약한 마음에 마귀가 틈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 저는, 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일대일 과정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에 대한 죽는 날까지 이어질 열망을 안겨주신 주님을 믿으며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일대일 양육기회를 주신 온누리교회와 양육자이신 영등포구로공동체 소망 다락방 1순의 저의 순장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께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정연승(영등포구로공동체)

서 안내자로, 멘토로, 일대일 양육에 양육자로 헌신하겠습니다.

/ 이영진 권사(분당B공동체)

있습니다.

처음 새신자 교육을 할 때는 나이 꼭 찬 아가씨였는데, 일대일 동반자 과정을 마친 지금의 저는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첫발을 내디뎠을 때부터, 모든 과정을 함께 해 준 남편을 만나게 해주심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이주현 성도

(분당B공동체)